

광주극장 안 '또 다른 꼬마극장'

'시네클럽'을 아시나요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은 스크린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극장 안에 '또 다른 꼬마 극장'이 운영되고 있다. 객석은 30여석에 불과한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

광주극장을 자주 찾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시네클럽'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특별한 격식 없이 자유롭게 극장을 찾은 회원들은 영화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시선들을 공유하고 있다.

날씨가 무척 추웠던 지난 1일, 광주극장 1층 객석과 2층 객석 사이에 위치한 옛 영상실.

영화 '다빈치 코드', '디 아워스' 현수막으로 가림막이 쳐진 공간에서 영화 상영이 한창이다. 벽에 걸려둔 스크린(1.8m×1.8m)에서는 빔프로젝트로 쏘아지는 집 자무쉬 감독의 '고스트 독'이 상영되고 영화가 끝나자 감독과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날은 수요시네클럽의 정기 영화상영날이다. 지난 1월 11일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수요시네클럽(매주

'수요시네클럽' 한 감독 작품 집중 감상

'토요시네클럽' 할리우드 고전영화 상영

홈페이지 통해 상영작 소개 관객과 소통



수요일 오후 7시30분)은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광주극장을 찾았던 신진아(26)씨가 제안한 모임으로 한 감독의 영화를 한달간 집중 감상하는 게 특징이다.

이날 상영회에는 8명이 참여했다. 다른 멀티플렉스와는 달리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극장을 자주 찾아왔던 이들이 극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고 자리를 함께했다.

첫번째로 선택한 감독은 집 자무쉬. '천국보다 낯선'을 가장 먼저 상영했고, 이후 '미스터리 트레인'을 거쳐 오는 8일에는 조니 데프 주연의 '데드맨'을 함께 관람한다.

"오래전에 집 자무쉬 감독의 '천국보다 낯선'을 추천받았는데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방법을 제외하고

는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자주 보는데 홈페이지에서 영화 감상 모임이 만들어졌고, '천국보다 낯선'을 상영한다고 해서 즉시 참여했죠.(웃음)"

모임에 두번째 참석한 이수진씨는 "영화가 끝나가 나서 잘 몰랐던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광주극장에는 또 다른 영화 보기 모임이 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거나 영에 눈을 주지 않는' 영화들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토요시네클럽 1과 1/2'다.

지난 2010년 3월 알 파치노 주연의 '스카페이스'를 첫영화로 상영한 토요모임은 당초 화요일에 모임 을 갖다 그해 6월부터 토요일 오후

2시로 시간대를 옮겨 지금까지 100여편의 고전 영화를 상영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예술적이었던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대의 고전 영화들'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짜는 토요클럽에서는 빌리 와일러 감독의 '선셋대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고 있다.

함께 감상할 작품을 고르는 이는 광주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지내고 광주시네마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맹철씨다.

두 클럽 회원 모두 가입 없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상영 예정인 영화는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日 문화운동단체 '우타고에' 사무국장 야마다 히로끼씨

"내 가슴속에 5·18이 그대로 들어왔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공연중인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 지난 3일 반가운 손님이 다녀갔다.

일본의 문화운동 단체인 '우타고에'(일본어로 '노래소리'라는 뜻)의 국제 교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야마다 히로끼(51)씨다. '우타고에'는 1998년부터 광주의 5·18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광주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단체다. 야마다씨는 일본 공연을 추진 중인 '화려한 휴가' 제작진의 요청을 받아 일본 초청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작품을 직접 관람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야마다 씨는 공연 보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다.

"가슴 속에 제가 알고 있던 5·18이 그대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지난해 일본에서 DVD로 감상했을 때도 좋았지만 직접 객석에서 보니 그 감동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극으로 만들어진 광주의 사실에 가슴이 쫘뼛 뛰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속 눈물이 나더군요. 도입부와 마지막에 반복되는 결혼식 장면이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도 극의 흐름을 잘 살린 것 같구요."

야마다씨는 "특히 여주인공 신에가 객석에서 메가폰을 들고 '우리를



말했다. 지난 1948년 설립된 '우타고에'는 1945년 패전으로 정체성 혼란에 빠진 일본인들의 억압된 의식을 노래를 통해 풀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약 3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 노래를 통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어렵고 큰 숙제를 안고 돌아옵니다.(웃음). 일본 공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광주에 대한 이해가 깊은 회원들이 많아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18의 의미도 담고 있고 예술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도 충분히 호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마다씨는 "서두르지 않고 늦어도 2013년에는 일본 공연이 성사되도록 일을 추진하겠다"며 "외국 공연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막과 5·18을 상징하는 영상작업이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오는 2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062-655-35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3년 日 공연 추진위해

뮤지컬 '화려한 휴가' 관람

기억해달라'고 말하며 조명이 객석을 비출 때 객석에 앉아 있던 젊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광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야마다씨는 또 도입부와 마지막 장면에 들었던 뮤지컬 넘버 '소풍'은 밝은 리듬의 노래임에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는 곡으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이 좋다고

전남대치과병원 전시회

18일까지 아트스페이스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오원만)은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오는 18일까지 올해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는 서양화가 나희자씨.

나씨는 뜻깊은 봄내음이 가득한 수채화 작품을 선보인다. 맑은 물빛이 인상적인 작품들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풍경들이 주 소재다.

병원측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맑고 고운 감성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치유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

더러우면 무조건 세탁하는 엄마, 급기야...

어린이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8일 문예회관

어린이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이하 우리 엄마)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극단 동그라미 그리기가 무대에 올리는 '우리 엄마'는 '호호 할머니'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유명 그림책 작가 사토 와키코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지저분한 것은 무엇이든지 빨아버리는 엄마는 우산, 슬리퍼는 물통이고 고양이며 닭을 빨래통에 넣어 깨끗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난 천둥번개 도깨비까지 빨아버린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쫓고 쫓기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고 빨래줄 작업과 빨래 날기를 관객과 함께 하는 등 아이들이 유쾌하게 관람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도깨비, 고양이, 강아지, 압타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다양한 노래가 귀를 즐겁게 한다. 티켓 가격 2만 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에서 운영하는 '수요영화모임' 회원들이 지난 1일 영화 관람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극장 제공>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